

귀 국 보 고 서

파견대학	절강수인대학교
파견기간	19. 9. 17. ~ 20. 1. 1.
프로그램	정규

1. 출국 전 준비사항

가. 유학생 보험, 비자, 항공권

- 유학생보험은 가격이 비슷비슷해서 적당한 가격의 상품을 선택. 수학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신청함.
- 비자 신청할 때 5개월 정도로 써서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본인은 4개월로 썼기 때문에 딱 4개월에 맞춰 나가야 해서 좀 더 여행을 하거나 여유롭게 올 수 없었음.
(X2비자의 경우)
- 본인의 경우 해당학교에 있던 사람들을 알게 되어 에어차이나의 수하물 2개 유학생항공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매할 수 있었음. 인터넷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 있음
- 인터넷 vpn, 중국은행계좌개설
- 현금 준비 (보증금 500 포함 기숙사비 3900위안 핸드폰 개통 100위안 그 외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계좌 개설 전 사용할 현금이 필요했음)

나. 필요 물품(짐 꾸리기)

- 의약품(감기약, 알러지약, 지사제 등등)
- 바퀴벌레약
- 샤워기필터
- 옷(중국 내에서 어차피 구매하기 때문에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되었음)
- 웬만한 것들은 중국에서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화장품같이 중국에서 비싼 것들이나 애매한 것들을 제외하고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됨. 그러나 본인은 4개월만 살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에는 아까운 것들은 챙기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 또 전 사람이 사용하던 것(침구류등)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탁 후 사용가능함 (찜찜하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됨)
- 특히 기숙사 내에 와이파이가 없기 때문에 모두 개인용 공유기를 사용함.
가지고있다면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함.(핸드폰 개통이 당일에 안되면 답답함)
- 기숙사에 그냥 책상 침대 옷장 화장실 외에 아무 것도 없고 본인이 채운다고 생각하고 가서 살 것과 가져가야할 것 등을 생각해보고 챙기는 것이 좋을 듯 함

2. 파견국 및 파견 대학

가. 파견 국가의 언어, 문화, 물가

- 중국 물가는 웬만하면 한국보다 저렴해서 한끼에 20-30위안정도(3400원-5400원)면 되었음

여행 등으로 다른 지역에 가본 경험 상 항주가 (상해제외)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조금 비싼 편.

본인은 한달에 여행을 틈틈히하고 풍족히 썼을 때 3500에서 4000위안정도 썼던 것 같음
아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음 교내식당을 이용하면 한끼에 딱 20-25정도

나. 파견 대학

나-1. 대학 선택 이유

가장 먼저 절강수인대는 중국인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나에게 가장 메리트였다. 중국어를 전공하지 않은 본인은 중국인들과 많이 접촉하며 언어 실력을 빨리 높이고 싶기도 했고 중국 수업을 경험해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절강수인대학을 선택했다.

또한 대학이 위치한 항주는 나름 대도시이기때문에 환경적응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중국후기를 많이 보았을 때 대부분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시설이 노후하고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항주의 절강수인대학교를 선택했는데 실제로도 도시가 깨끗하고 치안이 좋은 편이었다.

나-2. 공항 - 학교

인천에서 항주로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고 학교 측에 메일로 비행기 시간을 보내면 픽업해준다. 충북대학교가 써진 종이를 들고 온 중국인 학생들을 따라가면 됨.

그냥 찾아서 가자면 항주공항은 본인이 알기로 하나인데 항주샤오산공항에서 내리면 공항버스를 타고 杭州汽车北站로 가서 택시를 타거나 武林门(wulinmen)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1호선-2호선-5호선으로 2번 환승을 해서 종점인 善贤站(선현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된다. 고덕지도에 “浙江树人大学北门”을 치면 가는 방법이 자세히 나옴.

택시만 타는 것은 약 150위안정도 나와서 (택시기사마다 조금씩 다름) 비싼편이기 때문에 여러명이서 타는 게 아니라면 비추천이고(특히 짐이 많으면) 가는 방법도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는편이 좋음! 어차피 처음가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

나-3. 수강신청, 수업내용(프로그램 과정)

가장 먼저 수강신청의 경우 도착하면 선생님들이 불러서 시간표를 주신다. 일주일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시기때문에 알아서 골라서 시간표를 정해서 알려드리면 되었다. 나의 경우에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갔기때문에 국제학생담당 선생님이 어학당을 추천해주셨다. 애초에 수인대를 선택한 이유가 중국 본과 수업을 들어보기위함이었기에 고민이 되었는데, 본과 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본과 하나에 어학당 4개 수업을 선택했다. 섞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수인대의 장점임

본과수업은 '중국당대문학'이었는데 교수님이 외국인 학생에게도 문학관련한 과제를 내주셔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다. 듣기로는 다른 수업은 보통 일기쓰기나 여행갔던 것들을 써오는 과제였다는데, 이 수업은 시가분석이나 문학분석등이 과제였다. 따라서 본과수업은 수업마다, 교수님마다 다름

어학당수업은 듣기, 말하기, 서예, 통합 중국어, 쓰기로 되어있었는데, 본인은 쓰기를 제외하고 4개를 들었다. 서예, 쓰기가 2학점이었는데 서예는 그냥 들어보고 싶어서 신청. 재미있었음. 모든 수업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됨. 이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함.

본과 수업은 하나만 들었기때문에 본인이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어학당은 사람이 적어서 1대 1로 케어를 받는 느낌이고,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초보자인 나에게는 비교적 수월했다. 또한 수가 적어서 외국인들과 친해지기가 편했다. 따라서 영어도 함께 늘 수 있는 환경이다. 본과 수업은 이에 비해 중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친해지면서 회화를 연습해볼 수 있고, 개인 공부도 가능하며, 내용은 따라가기에는 힘들지만 (진짜 대학 수업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중국어가 크게 늘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말그대로 대학 수업이기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해서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어학당 수업도 당연히 개인이 노력해야하지만 수업이 점수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한다는 면에서 나는 어학당 수업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대신 본과는 점수를 웬만하면 잘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음)

나-4. 기숙사(홈스테이, 쉼어룸 등)

기숙사는 외국인 기숙사 하나인데, 1인 1실으로 넓고, 전기료를 따로 내고 사용하지 않아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됨. 처음에 갔을 때 외관이 허름해 보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해 보였지만 쓰다보니 불편하지 않았다. 기숙사 내부에 3층에 세탁기랑 4층에 부엌, 냉장고가 있다. (세탁기 한 번에 4위안) 기숙사 방에는 원하는 물건을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기숙사로 들어가는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편이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 수 도 있지만 본인은 1층에 선생님도 계시고 옆에 바로 선생님 기숙사가 있어서 (11시에는 학교로 들어가는 모든 문이 닫힘)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다. 또 이런 점이 장점이기도 했다.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음) 바퀴벌레가 있다. 본인의 방에서는 본 적 없음.

나-5. 교내·외 활동

학교에 동아리가 있고, 모집 시 참여할 수 있다. 보통 1년 있을 사람들에게 추천한다는데, 본인은 배드민턴동아리에 들었다. 회비를 15위안정도 걷었는데, (다른 동아리는 잘 모름) 혼자 들어서 딱 한 번 나갔기때문에 조금 아깝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친구도 사귀고 운동도하고 중국어도 늘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에도 처음 나가서 같이 배드민턴쳤던 친구와 학기 끝나고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여러 번 만나고 친해졌다. 한류동아리, 검도동아리, 코스프레동아리 등등 다양하며 우리학교처럼 가두모집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참여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뿐만아니라 학교에서 중국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해서 비단박물관, 만두만들기, 중국인들과의 만남 등등의 활동을 함.

나-6. 꿀팁(학교생활, 일상생활, 음식, 교통 등)

수인대학교는 선생님들의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운 느낌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학교 생활이 가능한 곳이었다. 수업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동아리도 들 수 있었는데, 따라서 자신이 생각해보고 중국어도 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어 초보자로서 중국어 실력을 차근차근 높이기에는 어학당이 좋았는데, 중국인들과 직접 접촉할 기회도 (본과 수업을 섞어 듣거나 동아리를 알아보는 등) 열려있기때문에 적절히 조절하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생활할지 자신이 정할 수 있었다.

(남자들의 경우 중국인들과 축구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았음)

또 8시 10분부터 수업이 시작되기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고 한국에서 보다 더 널널하고 시간이 많아서 그 동안 무엇을 할 지 생각해볼 수 있다. 공부를 혼자 더 할 수도 있고 항주 곳곳을 여행해 볼 수도 있다. 한국어로 된 중국어 공부책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학교 주변 가깝게 5호선 지하철 출발역이 있다. 시내까지 1시간 정도, 2번 정도 환승하면 되고, 택시로는 30-35위안정도 나온다. 항주에는 웬만한 볼 거리, 관광거리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톡톡히 여행가능하다.

필수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해보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본인도 먼저 수인대학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줘서 편했다.(고덕지도, 메이탄美团 등등)

학교 주변에 15분에서 20분정도 걸어가면 운하상가라는 큰 매장(?)이 있어서 먹을 것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운하상가 자체도 구경할만 하지만 학교 주변에 대운하가 있어서 산책하기에 딱 좋다. 뿐만아니라 대운하 자체에 예쁘게 조경을 해둬서 시간날때마다 놀러간 기억이 있음!

주변에 걸어서 갈만한 인타이청 백화점도 많고(30분정도 걸어야 택시 타도 됨) 편의 시설이 많음

3. 여행 정보(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후 여행한 곳이 있다면)

본인은 중국에 가는 목적이 중국어 실력 향상과 중국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톡톡히 여행하고자 학기 내에 항주, 상해, 남경, 청도, 소주를 다녀왔다.

항주에는 서호가 가장 유명하고 다른 것들은 비슷하게 유명했다. 서호는 커서 갈때마다 다른 느낌이었다. 이외에는 허팡지에나 성황각, 뇌봉탑, 영은사 등이 있는데, 허팡지에는 따로 필요없지만 다른 곳들은 입장료가 있어서 잘 확인하고 외국인 학생할인 등도 확인하고 가면 좋다. 어디든 택시로 35위안정도 잡고, 지하철도 학교근처에 있어서 쉽게 갈 수있다. 특히 학교근처 대운하에서 우린면으로 가는 수상버스가 있는데 버스타는 가격 3위안 정도로(항주교통카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기때문에 시간을 잘 맞춰 가서 타는 것을 추천한다. (풍경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았음)

상해는 2일정도 구경했는데 딱 좋았고, 난징은 1일로 다녀왔는데 부족해서 2-3일 잡는 것이 좋을 듯 했다. 청도에도 2박 3일있었는데 넉넉하고 좋았다. 소주는 1박 2일정도로 외국인 친구와 다녀왔는데 조금 촉박했지만 괜찮았다.

현지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플(쓰푸바오에 있는)을 이용해 숙박을 잡았었다. 3성급이하의 숙박업소는 외국인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어서 이는 잘 알아보고 해야한다. 어렵다면 트립닷컴같은 한국 어플을 추천한다.

4. 후배들에게 한마디

중국 절강수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한 것은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던 상태였기때문에 중국어도 늘었겠지만, 그것보다도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언어 또한 결국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언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애고 언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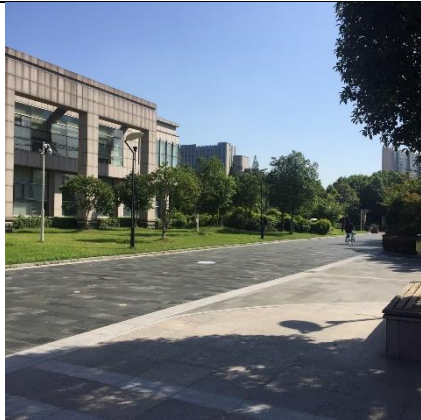
또한 여러 외국인들과 어울리며 생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직접 경험하는 한편 결국 똑같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4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통하는 나를 발견하고 대견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절강수인대학에서 수학하며 목표로 했던 중국어 실력 향상 뿐만 아니라 정말 나에게 가지고 있던 스스로의 편견을 깨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자하는 말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언어를 더 잘 배우고 싶다는 동기도 얻었습니다.

짧은 경험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행복했던 한 학기였습니다. 정말 몸으로 부딪혀서 중국어를 배우고 싶고, 스스로 계획해서 다양한 경험과 중국어 공부 모두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사진자료(대학교 전경, Classmate, Activities 등)



절강수인대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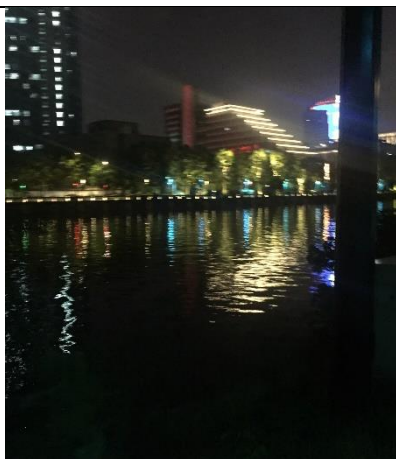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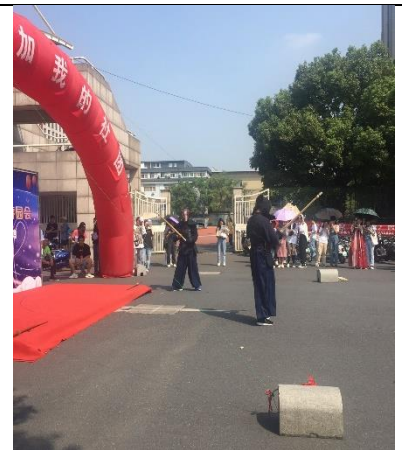
도서관



본과 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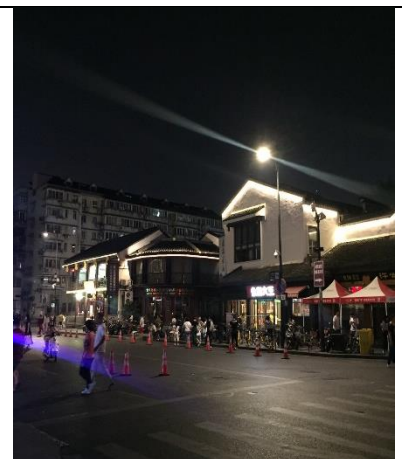
동아리모집



학교 옆 대운하



한중 친목 축구



허팡지에